

#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권 다툼 장기화

## 해임 前 관장측 법원 결정 무시 운영법인체 교체요구 투쟁 계속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둘러싸고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이사장 도희)가 박동너 전 관장과 법적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복지시설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라리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개관한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은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서울지부가 강남구로부터 수탁 받아 서울 봉은사주지명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갈등은 올해 3월 파라미터 법인이사회가 박동너 전 관장을 보직해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유는 재정적자가 2억여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 대책이 없고, 법인을 빼제한 채 시설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신임 관장에는 진정순씨가 임명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3월 22일 수련관 직원들과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수련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를 '비도덕적·부적격 운영법인체'로 규정하고 운영법

인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박씨와 파라미터는 서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여 간의 심리 끝에 5월 25일 '파신청인(박동너)은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수련관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신임 관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29일 '역삼청소년수련관 모든 직원은 비도덕적 운영법인체 교체를 위한 결사투쟁을 다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재판결과와 부적격 법인체와의 협약해지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강남구청 가장복지과는 약정서를 위반한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및 서울지부 봉은사

외의 협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서울지부는 "박동너 전 관장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련관을 무단 점거하고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시설운영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발생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인 재정적자를 법원에서 충당하는 등 시설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위탁시설의 운영권에 대한 수탁법인과 실질 운영주체의 갈등은 항상 잠복해 있는 불씨"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 개최

# “‘근대불교’ 개념 재정립 필요하다”

### 조성택 고려대 교수 지적

“근대불교라는 용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서술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사신)가 5월 31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에서 한국 근대불교 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중·일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조 교수는 '한국 근대불교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근대불교’라는 용어는 단순히 시대적 배경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제 변화에 반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를 의미한다”며 ‘근대불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대불교”란 특정한 형태의 불교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대공간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적응 방식을 통칭해 일컫는다는 것이다.

근대불교의 흐름을 종단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사상사적으로 접근할 경우 재가 신행단체나 불교 NGO의 활동 또한 ‘근대불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때문에 조 교수는 “근대불교 연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대불교가 태동한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적 인 불교사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기술(記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근대불교사와 조계종의 성립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역사로 기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근대불교’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볼 때 조계종은 오히려 ‘전통불교’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조 교수는 근대불교 연구자들이 상상력 빈곤과 타성적 연구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근대불교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병연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역시 “한국 근대불교는 전반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오늘날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목)는 6월 16~1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불교학교에서 배우는 부처님이야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학교를 위한 댄스’ ‘본인토의’ ‘페이스 페인팅’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신 찬불가와 율동 배우기’ 등이다.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 738-7860.

김원우 기자

## “‘생명·평화·나눔’ 실천”

### 불교인재개발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학교 개설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 청소년위원회는 ‘생명·평화·나눔을 위한 청소년학교’를 개설한다.

청소년학교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생명·평화·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격월 주말과 방학 기간에 ‘생태’ ‘역사’ 등을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외 탐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학교는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6월 9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제1기 청소년 생태 체험교실’을 개최한다.

오전 10시 입학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생태적 삶과 불교’ 강의와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를 주제로 한 숲 체험, 소감문 작성을 진행한다.

중·고등학교생 40명 선착순 모집이며 참가비 1만원. (02)735-242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연꽃 모으니 아이템 쑥쑥



### CCR社 ‘불심으로 대동광림’ 온라인 이벤트 인기몰이

온라인 게임업체 CCR(주)(대표 윤석호)는 자사의 SF 3D 다중접속 역할 수행게임 'RF온라인(WWW.RFonline.co.kr)'에서 진행되는 '불심으로 대동광림' 이벤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주일간 진행됐는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CCR(주)측은 6월 초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연꽃잎을 모아라’ 이벤트는 사냥터에서 몬스터들이 떨어뜨리는 ‘연꽃잎’ 아이템 5개를 모은 뒤 각 종족 본부에서 거주할 아이템으로 교환하면 된다.

연주환의 낚은 연주알, 행운의 연주, 축복의 연주, 지혜의 연주 등 아이템들은 한정시간 경매처와 숙련도 획득을 강화시켜 주거나 아이템이 떨어지는 확률을 항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금 아이템과 함께 사용할 경우 최고 250% 이상의 경험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게이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 김명자 무용단 자선공연 개최

6월 10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다채로운 춤사위와 흥겨운 대중가요가 어우러지는 ‘2007년 이웃사랑 자선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무용의 중심이자 전통예술가인 김명자 대표(김명자 전통무용단)와 그의 제자로 구성된 ‘김명자 전통무용단’이 준비한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명자 대표는 매일 아침 108참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행 정진하는 자세로 전통춤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야무형문화재 제27호(승무, 제97호(살풀이) 보유자인 이매방씨의 부인이기도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김명자 대표는 “지난 35년간 예술가로, 교육자로 살게 해 준 제2의 고향인 부산시민 모두에게 드리는 감사의 나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1)646-4480

하성미 기자

## 9년만에 올린 감동의 웨딩마치

### 부산 용호문화센터, 장애인 부부 결혼식 지원

“나도 그댈 사랑해. 그대보다 더 오래 오래. 평생 웃게 해 줄게. 우리 둘이서 같이 산다면.”

5월 30일, 부산 용호문화센터에 불꽃같은 결혼 축가가 울려 퍼졌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장애인 부부를 위해 마련한 ‘사랑의 결혼식’ 현장에서는.

이날 신랑 장양규(42)씨는 “지금처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신부 이현숙(30·정신지체장애 3급)씨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자녀 장수연(8)양과 세환(7)군이 화동으로 나섰다.

뒤편 하용호복지관 은빛강사단 서예강사)씨의 주례로 혼인서약을 마친 이들 부부는 “9년 동안 기다렸던 화족의 순간을 맞게 돼 기쁘고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뒤편 하씨는 “둘이 하나로 힘을 합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자녀를



신랑 장양규씨와 신부 이현숙씨가 결혼 축가를 듣고 있다.

키우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결혼식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주)강산봉은 채동우 대표, 수필가 조

상영씨, 클로리웨딩을 탁경순 대표 등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무료로 치러졌다.

하성미 기자

## “한국 전통사찰의 美 만끽”

### 부산 범어사, 동아시아 선주대회 기간 맞춰 개방

부산 범어사 보제루의 오른쪽 벽면, 목우도 선화(禪畵)를 보며 외국인들이 호기심에 찬 탄성과 질문들을 쏟아낸다.

“왜 소가 흰색으로 변하나요?” “왜 마지막의 그림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나요?” “왜 소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나요?”

5월 30일 범어사주지대사는 ‘2007 동아시아 선주(船主)대회’ 기간에 맞춰 외국인 전통사찰 대회를 실시했다.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안내하고 전통다도와 발우공양 체험, 영산재 시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행사를 진행한 연수국장 종인 스님은 “동아시아 선주 대회 참석차 방한한 외

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온 니콜 아페이블(Nicole Afafe · 46)은 “대웅전에서 들리는 기도소리와 부처님게 절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사천왕의 모습이 위엄 있고 강인해 보여 참 잘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등에서 참가한 40여명의 선주들은 영산재와 다도시연 등에 큰 박수를 보냈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짧은 사찰체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성미 기자

## 영화로 ‘마음의 병’ 고친다? 불교상담개발원 특강 마련

영화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까?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6월 13일 오후 4시 조계사 교육관 2층 제4강의실에서 ‘영화치료’를 주제로 월례특강을 개최한다.

영화치료전문가인 김준형 불교상담개발원 이사가 강사로 나서 영화를 통한 심리치료 기법을 소개한다.

불교와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02)737-737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내년부터 불교학과 전과 금지”

### 동국대 2008학년도 대학편제·정원조정안 발표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불교학과 전과 금지, 이를 비롯해 비인기 학과 통폐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008학년도 대학 편제 및 정원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안중 불교대의 개편 내용을 보면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과 금지 △대학생 전원 장학금 수여 △기숙사 및 사생활 의무화 △정원 감축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학부제 공통기초교육 등의 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국어·독문학과 15명(정원대비 50%), 북한학과 20명(정원대비 50%) 감축 등 2008학년도 입학정원 총 255명(서울 110명, 경주 145명) 감축 △총 90명 정원인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독어독문과 등을 30명으로 감축 한 뒤 ‘활학윤리문화학부’로

재편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 행정학, 북한학), 경제통상학부(경제학, 국제통상학), 사회·인문정보학부(사회학, 신문방송학), 생명공학부(생명과학, 식물생명공학, 환경·환경생태공학, 의생명공학) 및 식품과학부(식품산업시스템, 식품공학)로 재편된다.

동국대는 “이번 학제 개편은 사전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의한 뒤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국대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법과대, 사범대, 정보산업대 등 6개 단과대학 학생 30여명은 학제개편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22일 교내 본관 3층 교무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개최

### 이달 11일 서울프레스센터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선리연구원 학술상에는 김문경(백양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진주(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무희(국민대 국사학과 강사)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학술회의에

서는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 논문이 발표된다. 김진주 연구교수는 ‘승조(僧肇)의 비유 비무(非有非無) 논증과 그 의의’, 남무희씨는 ‘원족의 유식사상과 당대(唐代) 화엄종과의 영향 관계’를, 김문경 학예연구사는 ‘조선 후기 백양사의 경제활동’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료는 이병욱 교수(고려대 철학과),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 이병희 교수(한국고원대 역사교육과)가 나선다. (02)734-965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구담사, 전차대대 팔정사 위문 텔레비전·초코파이 등 전달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포천 구담사 주지 지율 스님과 신도회, 회장단, 거사팀회는 5월 20일 자매결연을 맺어 온 8사단 전차대대 팔정사를 방문해 그들

안 준비해 온 텔레비전, 선종기, 초코파이, 과자 등을 전달했다.

이 전달품은 태어영가천도 참회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장병들을 위해 십시일반 보시한 것이다. 지율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군포교와 한 생명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